

지을 스님 포크레인 위 시위

천성산 고수철도공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포크레인에 올라간 지을 스님.

차라리 날 구속해라!

천성산 고수철도공사 현장, 지을 스님은 포크레인 위에 앉아 있다. 높다란 포크레인 위에 덩그러니 앉아 온 몸으로 천성산 공사 진행을 저지하고 있는 지을스님은 최악의 경우 구속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놓였다.

4월 17일, 독일에서 온 거지 성자 페터 노이아트와 엘리야 수녀와 함께 천성산 자락

자전거 순례 중이던 스님

은 공사 재개 소식을 현장에서 달려왔다. 그리고 곧바로 포크레인 위로 올라갔다. 스님에겐 이미 법원으로부터 공사현장 접근 금지결정이 내려진 상태지만 공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스님의 행동을 현장 관계자들마저 말리지 못했다. 땅을 파헤치던 포크레인은 멈춰 섰고, 다시 공사는 중단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스님을 고발 조치했고, 스님의 포크레인 위 투쟁이 계속된다면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사가 없는 주말 동안, 공사 현장을 나와 장대비를 풀고 자전거 투어를 마친 지을 스님과 일행들은 20일 동부서

적에서 <천성산과 거지성자 페터 노이아트 만남>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에는 2백 명을 넘는 청중이 참여해 천성산과 생명,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페터 씨는 "잃어버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장에서 만난 지을 스님의 얼굴은 며칠 사이 새가팔

고 강조했다.

17일 강연

중이던 스님

은 공사 재개 소식을 현장에서 달려왔다. 그리고 곧바로 포크레인 위로 올라갔다. 스님에겐 이미 법원으로부터 공사현장 접근 금지결정이 내려진 상태지만 공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스님의 행동을 현장 관계자들마저 말리지 못했다. 땅을 파헤치던 포크레인은 멈춰 섰고, 다시 공사는 중단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스님을 고발 조치했고, 스님의 포크레인 위 투쟁이 계속된다면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사가 없는 주말 동안, 공사 현장을 나와 장대비를 풀고 자전거 투어를 마친 지을 스님과 일행들은 20일 동부서

17일 순례행사중 현장으로

당국선 고발조치·접근금지 결정

"산의 절규 더 생생히 들려요"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교문화 대중과 함께해요

대구 남구 대명동 불교회관 1층에 불교 전문 갤러리가 등장한다.

불교문화 예술을 널리 알리고, 전통과 동양의 문화를 선보일 갤러리 목연가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김성삼 교수의 민족혼 찾기전'을 5월 24일부터는 '선문인화전'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불교방송 문화센터를 통해 서각과 문인화 작업을 하게 됐다는 박용환 관장은 "숨겨진 예술인과 불교문화에 관심 있는 아마추어 작가들을 위해 대중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아담하고 편안한 전시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불교문화예술 홍보를 위해 영리와 관계없이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4월 30일부터 전시가 시작되는 김성삼 교수는 현재 대구한의대학교 미술학과에 재직 중이며, 한국적 마티에르가 있는 색채 미감과 고서화를 응용한 종이작업을 통한 새로운 조형기법으로 프랑스와 일본 개인전에서 크게 호평을 받은바 있다.

한편 부산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48

호 이수자인 서암(西岩) 한승구(46) 씨의 개인 갤러리 '갤러리 가인'이 문을 열었다.

20일 문을 연 '갤러리 가인'은 개금불사, 단청 벽화 작업뿐 아니라 동국불교미술연구소를 운영하며 휴판에 채색기법으로 그림세계를 열어왔던 한승구 씨의 작품이 상설 전시되는 공간이다. 그림 영역을 한정하지 않고 "감흥이 일면 기법이나 소재를 가리지 않고 그림뿐"이라는 한 씨의 말처럼 채색기법, 수묵화 기법 등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근작 37점이 전시되고 있다.

평소 한 씨의 그림세계를 아꼈던 불사 기획 불이문 대표인 김정분 씨의 제안으로 이뤄진 '갤러리 가인'은 불심전, 구도 여행전 등 불교적 소재와 주제로 작품활동을 해 온 한승구 씨의 작품을 통해 불교적 철학을 만나는 공간. '갤러리 가인'은 다실을 갖추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열어 평일에도 직장인들에게 그림 감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전망이다. (051)515-0925

천미희·배지선 기자

소림사 청심회 장학금 전달

5명에 총 230만원 지급

부산 소림사주지 혜진 청심장학회(회장 이대원)는 4월 19일 소림사 대웅전에서 첫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1년전 소림사 신도회 창립과 함께 만들어진 청심장학회는 일년동안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오다 설립 1주년을 맞으며 첫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소림사 회주 정일스님을 비롯 3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해 청심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청소년들을 축하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이장래(경남고 1), 박소연(동주정고 2) 학생을 비롯 다섯명의 장학생에게 총 23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처음 1천만원의 기금을 낸 박청심행 보살을 특별회원으로 176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청심장학회는 적은 금액이라도 정성을 모을 회원을 모집중이다. (051)468-4497

천미희 기자

봉통사 부산포교원 개원

60명 규모, 불교대학 계획

경북 봉통사 부산포교원(주지 정범)이 4월 21일 백련암 회주 원산 스님을 증명 법사로 집안법회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재활 임종 복지 센터 건립을 목표로 불사를 진행 중인 봉통사 부산포교원은 부산은 천장 식물원 입구에 위치, 신도 교육과 신행의 새로운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60명 규모의 봉통사 포교원 개원법회에서 전 교육원장이자 3년 무문관 수행 결사를 회향한바 있는 원산 스님은 "부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자리를 깨쳐 부처를 이루려는 바른 정진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법문 했다.

봉통사 포교원은 6월부터 주간반 야간반으로 나눠 열리는 봉통불교대학 및 경전대학을 통해 '신심있는 불자' '지적인 불자' '행동하는 불자' '성취하는 불자' 등의 실행목표를 향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매주 수, 목 저녁 참선법회, 첫째 토요일 월야 영양정진 등으로 수행 도량의 기능도 갖추게 된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어린이 포교를 위해 어린이 한문학당을 진행한다. 한편 전 통도사 포교국장을 지낸 정범스님은 경북 봉화 봉통사에 노인병원, 실버타운, 납골당 등 임종 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땅 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051)518-3127

천미희 기자

부산 금산사와불 속 법당 점안



부산 금산사 칠여래 천불 점안법회가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3년간 불사... 목조최대 와불

부산 기장 금산사주지 무유는 4월 16일 세계 최대 목조와불 목속 법당에 칠 여래 천불을 모시고 점안법회를 봉행 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보암 스님의 집전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3백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구미 무량사 월우 스님이 법문했다.

3년 여년의 불사 끝에 점안 법회를 봉행한 무유 스님은 "한국 사찰에는 와불이 대

부분이어서 다양한 부처님의 형상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에 인연 맺길 바라는 마음에서 와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향유 스님은 노천 석가모니 와불 조성도 구상중이다.

통도사 말사인 금산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 와불은 길이 약 15m, 높이 4m, 폭 3m에 이르며 목조 와불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와불 내부에 또 하나의 법당을 마련해 부처님 복장 속으로 들어가는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동화사 생전예수재 회향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지성)는 4월 18일 생전예수재 공동회향식을 봉행했다.

본말사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통일대불 앞에서 봉행된 예수재 회향식은 대웅전 앞에서의 삼신이운식을 시작으로, 제불보살을 가마에 모시고 대불로 이운하는 시연, 영가를 강림케하고 목욕시키는 대련관육,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의 법문, 관공 축원 순으로 진행됐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청정한 마음과 신심으로 행복을 많이 짓도록 하는 신앙의 한 방법"이라고 법문했다.

지관관장 지현은 4월 23일 관음사 앞마당에서 사하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1천여 명을 초청해 '제7회 두승경로잔치 및 자비로운 어머니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천미희·배지선 기자

성타·자광·법타 스님 등 경승해



연흥사·두승복지관 경로잔치

대구 범상사 칠곡분원 연흥사주지 실사는 4월 17일 앞마당에서 제15회 경로잔치 한마당을 열었다.

1부 예불, 2부 점심공양, 3부 공연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500명이 넘는 칠곡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했고, 자원봉사를 위해 연흥사 신도들이 두 팔 걷고 나섰다. 특히 평균 연령 70이 넘는 대구노인종합복지관 한국무용 하나반 공연단의 부채춤과 강강술래 공연은 큰 인기를 누렸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늘기쁜 마음 두승복지

배지선 기자

대구=배지선 기자

동승동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생활의 지혜 365일 부처님 말씀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진정한 불자입니다!

【10월 1일】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전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도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힌다.
<대장엄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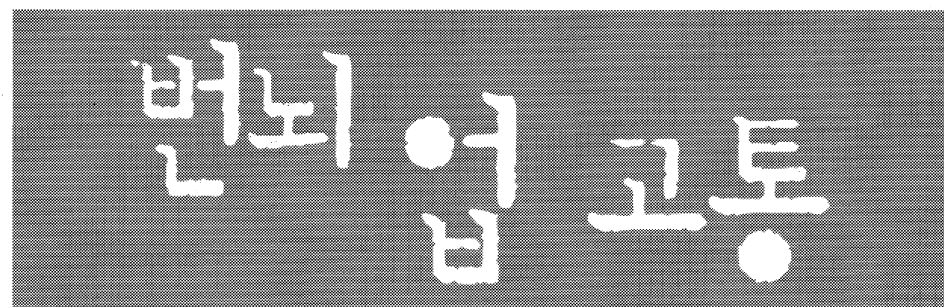
- 1월 · 지비와 보시
- 2월 · 선행과 악행
- 3월 · 지혜로운과 어리석음
- 4월 · 중오와 반성
- 5월 · 인내와 노력
- 6월 · 애착과 고통
- 7월 · 애욕과 탐욕
- 8월 · 올바른 삶
- 9월 · 친구와 가정
- 10월 · 거짓말과 말조심
- 11월 · 자유와 행복
- 12월 · 진리와 무상

윤창화 엮음
값 7,500원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번뇌와 업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번뇌는 업을 낳고 업(業)은 고통을 낳는다!

정승석 지음(동국대 교수)



민족사 간/신국판/값 8,500원